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2020.05.22(금)

지부교섭 속보 02호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2차 지부교섭_지부 요구안 설명]

함께 사는 사회 만들어야



함께 사는 사회가 위기극복의 핵심

2차 지부교섭이 21일(목) 15시 코스모링크에서 열렸다. 지난주 지부교섭이 사측 성원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이번 주에 2차 교섭이 열렸다. 김정태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코로나 이후 위기를 극복하는 처방의 핵심이다. 인원정리, 임금삭감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사회공공성 확대, 평등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부 요구안 설명

지부는 올해 기본급 인상 월 120,304원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임원 또는 간부 공직취임 인정,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지회 및 지부 담당간부 회의 참여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정성훈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파괴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악이 진행 중이라 노동3권 보장 요구안에 제출됐고,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 보호 요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요구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례 깨뜨린 보쉬자본, 교섭 파행 우려

보쉬자본이 지부교섭위원들의 교섭 참여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교섭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교섭 시간 보장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이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켜왔던 내용인데 보쉬자본이 관한 트집을 잡고 있다. 지부는 교섭 파행을 불러올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차 교섭 속기록

인원정리, 임금삭감으로 위기 극복 못한다!

사 : 지부에 속해있는 6개 회사들 각각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지금 경기가 불황인건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고 코로나 이후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코스모링크도 제일 큰 고객 가운데 하나인 한전이 매입금액을 줄이고 있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여기 모인 분들이 합심해서 각 사별 어려움을 해소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합의,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노 : 올해는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장도 어렵다보니 지부교섭도 파행으로 가는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해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도 저성장시대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으면서 실제로 위기라는 걸 또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몰랐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다. 영국도 그렇고 오히려 잘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 곳이 사망율이 높다. 공공시스템이 있는 사회와 비교해서 공공시스템이 무너진 민영화된 사회의 사망률이 높은 걸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 방식으로는 안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코로나 이후 위기를 극복하는 처방의 핵심이다. 올해 많은 기업이 어렵지만 단순히 과거 방식으로 인원 정리하고 사람 쳐내고 임금 삭감하는 방식으로 안된다는게 코로나 위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럴수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최대한로 버텨주고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물론 여기 있는 사용자가 그걸 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다. 금속노조도 사회공공성 확대, 평등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교섭은 그런 걸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지부 요구안 설명〉

사 : 오늘은 설명만 듣는 걸로 하자.

노 : 지부교섭 들어가면 지부교섭위원을 사측에 통보 해주는데, 그럼 보통 교섭당일은 관례적으로 시간할애를 인정했다. 지회 교섭과 무관하게 지부교섭 당일 전 임활동 인정하고 있나?

사 : 다른 회사는 다 하고 있고, 보쉬는 내부적으로 더 얘기해봐야 한다.

노 : 예전에는 지부교섭과 지회교섭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시기에 차이가 좀 생겼다. 지부교섭에서 별도로 합의한 적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당일 전임을 인정해왔는데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 : 올해는 지회교섭 시작 못했고,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달라.

노 : 당장 지부교섭이 문제가 된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할 문제다. 타임오프 적용하더라도 협의시간, 교섭시간은 시간할애를 해줘야 하는게 당연하다. 다른 문제라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그냥 협조하겠다고 하면 될 문제다. 지부교섭위원에 대해서 교섭참여 협조한다고 약속해라.

사 : 지부교섭 존중한다.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특정회사를 문제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파행되지 않게 한다면 일주일 시간을 주자.

노 : 올해 상당히 어려운 해다. 각 사업장마다 지회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안다. 지부교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협조하는게 서로가 좋을 거다. 지부교섭 파행 안되게 시간할애 협조해달라.